

# 05년 3분기 휴대폰 시장 결산

총 2억800만대 공급 '2억대 안착'  
노키아 32% 모토 18.6% 삼성 12.9%

글 | 김중을 기자(모바일타임스)

## 세계 휴대폰 시장

2005년 3분기 세계 휴대폰 시장은 총 2억 800만대로 1분기 1억7400만대, 2분기 1억8800만대를 넘어 분기 실적 2억대에 안착했다.

4분기 실적에 따라 실적 첫 8억대 돌파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것도 무리는 아닌 듯하다.

휴대폰 시장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세는 10억대를 향해 달리고 있으며, 그 시기는 2009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 3분기 2억800만대 실적은 작년 3분기 1억 7500만대보다 19% 정도 증가한 것. 선진국의 교체 수요와 개도국의 신규 수요가 시장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올 3분기 실적을 보면 상위 5사 점유율이 현격하게 높아졌다.

노키아, 모토로라, 삼성전자, LG전자, 소니에릭슨은 모두 전년 3분기에 비해 출하량을 증가시켰다. 메이저 5사의 3분기 점유율은 총 77.5%로 전년 3분기에 비해 14.7% 정도 증가했다.

### · 노키아

노키아는 3분기에 6660만대의 휴대폰을 판매해 32%의 점유율로 업계 1위를 차지했다. 전년 3분기 29.4%에 비해 점유율 2.6% 향상이었고, 5140만대에 비해 공급수량 29.6% 상승이었다. 수량으로는 1500만대나 증가한 수치.

노키아의 수요 견인은 중국과 아시아 시장에서 이루어졌다. 중국과 아시아 시장에서 노키아는 작년 3분기에 각각 460만대와 880만대 판매를 기록했으나 올 3분기에 850만대와 1260만대를 판매했다. 그러나 북미 시장에서는 580만대 판매에 그쳐 작년 3분기 660만대보다 감소했다.



· **모토로라**

모토로라는 3분기에 3870만대의 휴대폰 판매로 상반기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3870만대는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이다. 이로써 모토로라는 3분기까지 휴대폰 누적판매대수 1억110만대를 기록하게 됐다. 모토로라에 따르면, 휴대폰 세계 시장점유율은 18.6% 수준이다. 전년 3분기 13.3%에 비해 5% 성장했다.

3분기 모토로라 휴대폰 실적을 견인한 것은 역시 레이저폰. 모토로라측은 레이저폰이 3분기에만 650만대 판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누적으로는 1200만대이다.

·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3분기 휴대폰 판매량은 전분기 대비 10% 증가한 2680만대. 삼성은 전분기 2400만대의 휴대폰을 판매했다. 3분기까지의 누적은 7500만대 수준으로 연간 1억대 돌파가 가능하게 됐다. 삼성전자측은 유럽 및 북미지역에서 판매량이 증가했으며, 국내에서도 블루투스폰 등 신제품이 판매 호조를 기록해 전분기 대비 10% 증가 실적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수출 판가의 경우 2분기 176달러에서 3분기 175달러로 비슷했지만, 내수 판가는 34만원에서 33만원으로 1만원 가량 하락했다. 지역별 판매는 유럽 36%, 아시아 25%, 북미가 25%였다. 유럽 비중은 2분기 33%에서 3% 증가한 것.

· **LG전자**

LG전자는 05년 3분기에 1550만대의 휴대폰을 판매해 역대 최고 분기실적을 기록했다. LG전자는 4분기 연속 분기실적 1000만대 이상 판매한 세계 4위 휴대폰 제조업체이지만 1390만대 분기 판매가 역대 최고였다.

3분기까지 3900만대의 휴대폰을 판매한 LG전자는 이로써 올해 실적 5500만대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LG전자의 1550만대 분기 실적은 전년 대비 31% 증가, 전분기 대비 28% 증가한 것이다.

기술방식별로는 CDMA가 880만대, GSM이 560만대, WCDMA가 110만대의 판매를 기록했다. LG전자의 실적을 견인한 기술은 CDMA 수출이었다. 내수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했지만 북미 및 인도 시장에서 실적 호조로 CDMA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다. 전년 동기 LG전자의 CDMA 공급물량은 600만대였다. GSM방식도 전년 동기 450만대에서 560만대로 실적호조였다. 유럽 및 신흥시장 개척으로 괄찬은 실적을 거둘 수 있었다고 LG전자측은 전했다.

· **소니에릭슨**

소니에릭슨은 3분기에 1380만대를 판매해 6.6%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작년 3분기 1070만대에 비해 300만대 증가했다. 점유율도 작년 3분기 6.1%에서 0.5% 상승했다.

05년 3분기 휴대폰 제조업체별 실적 (단위 : 100만대)

구분	3Q 05		3Q 04		증가율(%)
	공급량	점유율	공급량	점유율	
제조업체					-
노키아	66.6	32.0%	51.4	29.4%	29.6%
모토로라	38.7	18.6%	23.3	13.3%	66.1%
삼성	26.8	12.9%	22.7	13.0%	18.1%
LG	15.5	7.4%	11.8	6.7%	31.4%
소니에릭슨	13.8	6.6%	10.7	6.1%	29.0%
기타	46.9	22.5%	55.0	31.4%	-14.7%
합계	208.3	100.0%	174.9	100.0%	19.1%

※자료 : IDC



다. 소니에릭슨은 3분기 상당한 워크맨 휴대폰의 판매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에서 이 휴대폰의 판매는 가히 '하늘 높을 줄 모른다'고 전해질 정도이다.

### 미국 휴대폰 시장

3분기 미국 휴대폰 시장에서 LG전자는 2위에 등극하는 귀염을 토했다. 삼성전자는 4위에 머물렀다. 1위는 모토로라.

NDP그룹 발표에 따르면 LG전자는 3분기에 총 507만대의 휴대폰을 미국 시장에 공급해 점유율 16%로 2위를 차지했다. 1위 모토로라의 945만대 공급, 점유율 30%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 실적이지만 노키아와 삼성전자를 제치고 등극한 2위자리여서 의미를 가졌다.

모토로라와 LG전자에 이어 노키아가 503만대 공급으로 3위, 삼성이 488만대 공급으로 4위에 올랐다.

5위는 산요전기, 6위는 교세라, 7위는 소니에릭슨 등 일본계 업체가 차지했지만 공급물량은 100~150만대 수준으로 상위 그룹과는 많은 격차를 보였다.

전통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큰 활약을 하지 못했던 지멘스/벤큐는 50만대 공급으로 점유율 2%에 그쳤다.

### 05년 3분기 미국 휴대폰 시장

(단위 : 1000대)

업체명	공급량	점유율
모토로라	9,455	30%
LG전자	5,077	16%
노키아	5,032	16%
삼성	4,883	16%
산요	1,522	5%
교세라	1,378	4%
소니에릭슨	1,150	4%
유티스타컴	9,52	3%
지멘스/벤큐	5,06	2%
기타	1,625	5%
합계	31,583	100%

※자료 : NDP그룹

휴대폰 개별 기종 판매 순위에서는 모토로라의 '레이저 V3' 가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노키아의 '6010' 이 2위, LG전자의 'V551' 이 4위에 등록됐다. 모토로라 휴대폰은 레이저폰 외 'V551' 이 3위, 'V180' 이 5위를 기록했다.

3분기 미국시장의 휴대폰 총 판매대수는 3160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 전기는 2960만대였다.

### 국내 휴대폰 시장

3분기 국내 업체들의 휴대폰 출하 실적은 최소 5000만대에 달해 상당한 호조로 평가됐다. 이는 작년 3분기 4000만대 정도보다 1000만대 가량 늘어난 것. 삼성이 400만대, LG가 400만대의 실적향상을 기록했으며 스카이 실적을 포함한 팬택계열이 50만대 정도 증가했다.

3분기 내수 휴대폰 실적은 355만대로 전년 3분기에 비해 10만대 증가했다. 이로 인한 3분기까지 내수 시장은 1070만대. 남은 4분기 물량을 350만대로 가정하더라도 총 시장은 1400만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1600만대에 비하면 무려 200만대나 감소한 것이다.

업체별로는 삼성전자가 180만대 공급으로 점유율 50%를 돌파했다.

삼성전자는 블루블랙폰과 가로본능폰을 앞세워 시장몰이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LG전자는 68만대 공급으로 점유율 20% 정도를 기록했다. LG전자의 점유율 20%는 그동안 이 회사가 기록한 실적에 비해 저조한 것이지만, 전체 내수 시장을 잡는 기준에 따라 점유율은 다른 상황이다. 일부에선 3분기 내수 시장을 355만대 정도로 잡지만 LG전자측은 자사 집계는 이보다 적고, 그래서 자사 점유율은 더 높을 것으로 판단했다.

스카이를 포함한 팬택계열은 76만대 공급이었다. LG전자보다 많은 물량 공급이지만 스카이 물량을 합한 것이어서 충격적인 수량은 아니다.

그리고 모토로라의 경우 3분기에 35만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 업체들의 물량 공개는 금기사항으로 돼 있지만 업체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리고 모토로라의 3분기까지 내수 물량 공급은 85만대 수준.

이같이 전체 내수 시장 감소는 업체들의 폭발적인 판매고를 기록한 제품 부재와도 연결됐다. 단일모델 기준으로 100만대 판매를 기록한 모델은 자취를 감출 것 같고, 그나마 50만대를 판매하면 감지되지한 수준이다. 업계에서 일컬어지는 히트 휴대폰은 하루 판매

량이 1000대, 누적 30만대 정도이기 때문에 50만대 이상은 '초대박폰'으로 일컬어진다.

지난해 50만대 이상의 판매를 기록한 휴대폰은 삼성전자 SCH-V410(130만대 이상)과 스카이의 IM-7200(55만대)이었으나 올해는 자취를 감춘 상태. 총 누적으로 따지면 모토로라의 스타택2004가 현재 75~80만대 판매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스타택 2004 휴대폰은 발표 1년 7개월만에 기록한 실적이어서 '꾸준함'을 자랑할진 몰라도 폭발적인 시장 견인력은 부족하다.

올해 선보인 휴대폰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모델로는 지난 9월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SCH-350이 40만대 이상 판매고를 기록해 가로본능2(모델명: SCH-V600)와 블루블랙폰(모델명: SGH-D500)을 앞섰다. 기대를 모았던 블루블랙폰은 9월 현재 35만대 정도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지난해 MP3폰 열풍을 일으킨 어머니폰 후속 모델인 어마나폰2(모델명: SD870)를 30만대 가량 팔아 히트폰 반열에 올랐다. 어머니 시리즈 전체 판매량은 60만대 내외. **K**

#### 주요 3사 월별 내수 공급량

업체명	7월	8월	9월	3Q 합계
삼성전자	57만대	60만대	63만대	180만대
LG전자	22만대	23만대	23만대	68만대
팬택계열	24만대	23만대	29만대	76만대
기타	9만대	14만대	8만대	31만대
합계	112만대	120만대	123만대	355만대

※팬택계열은 스카이 물량 포함, 모바일타임스 참조